

노인의 중요생활사건 정서가에 따른 사건의 주제, 발생 시기 및 회상정보 인출량*

김 영 경¹⁾

충북대학교 인간심리연구소

본 연구는 노인이 회상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중요생활사건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 사건은 언제 발생했으며, 부정사건보다 긍정사건을 더 상세히 기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노인 60명으로 평균연령은 75.75세였으며, 내 인생의 중요생활사건 중 긍정적인 사건 세 가지, 부정적인 사건 세 가지를 회상하도록 하였다. 사건 주제 및 연령은 빈도와 백분율로 알아보았고 사건 정서가별 정보량 차이는 SPSS 21을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건 주제에서 긍정사건으로 자녀 출생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인간관계, 일, 자녀 결혼, 본인 결혼 순이었으며, 부정사건으로 가장 많이 회상한 주제는 사별이었고 인간관계, 건강, 금전문제가 뒤를 이었다. 사건 발생 시 연령은 긍정사건에서 26-30세가 현저히 높았던 반면, 부정사건에서는 26-30세가 61-65세와 유사하게 높았고 긍정사건만큼 다른 연령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노인은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의 세부사항, 사건에 관련된 나의 행동과 사고, 사건에 관련된 타인의 언어와 행동을 더 잘 기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고절정이 긍정사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였으며, 노년기 긍정편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을 지지하지 않았다. 논의에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추후연구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요어 : 자전적 기억, 생활사건, 회고 절정, 자기향상기능, 긍정편향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2041080).

1) 충북대학교 인간심리연구소, 학술연구교수 (E-mail: ykkwhite@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살아온 시간이 살아갈 시간보다 더 많은 노인은 미래보다는 과거를 생각하거나 이야기하게 되는데, 죄책감이나 슬픔, 절망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끝난 과거 일을 강박적으로 반추하는 경우에는 성공적 노화를 저해하지만(Lo Gerfo, 1980), 회고의 긍정적 영향이 많다. 과거 회고가 우울 증상을 개선하고(Watt & Cappeliez, 2000) 심리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며(Pinquart & Forstmeier, 2012) 인지기능 측면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다(Subramaniam & Woods, 2012).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자전적 기억의 기능에 대해서 대체로 세 가지로 대별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며, 둘째는 자기 경험이 타인과의 대화 소재가 되고 대화를 통해 타인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유지·심화시킬 수 있다. 전자가 자전적 기억의 지시기능이고 후자가 사회기능이며, 또 다른 기능이 자기기능이다. 자기 경험을 돌아보며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므로 자기 정체성, 자기 의미, 자기 연속성, 자기 통합을 찾게 된다(Bluck, 2003; Pillemer, 1992). 개인이 과거를 회고할 때 떠오르는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사건 속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자기개념의 기반이 되므로(Pillemer, 1992; Willson & Rose, 2003) 어떤 사건을 어떻게 회상하는지는 개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회상할 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나 자기 지식에 일치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사건은 쉽게 접근되므로(Coway, Singer, & Tagini, 2004) 자전적 기억은 노년기에 자기 및 자기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유익한 재료가 된다.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며 그 사건 속의 나의 모습이 나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개념에 통합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연구(김영경, 김혜리, 2019)에서 청년은 사건의 생생함과 새로움, 시연 등 여러 요인이 긍정 및 부정적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긍정적 사건의 중요성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노인이 되면 젊은 시절에 작용하던 여러 요인의 영향력이 사건의 중요성으로 단순화되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긍정 사건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그 사건 속의 나의 모습이 자기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김영경(2021)은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긍정 및 부정적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아보았다. 청년은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의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하였는데, 부정적인 사건에서 내가 한 말과 행동, 나의 생각과 정서를 더 많이 기억하였고 타인의 행동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청년은 높은 청년보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정서 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자존감이 낮은 청년이 느끼는 강한 부정적 정서가 자기개념에 손상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면 노인

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선행연구에서 사건의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중요생활사건을 회상하도록 하였을 때 부정적인 사건보다 긍정적 사건을 더 잘 기억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며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나를 더 좋게 평가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경험이 쌓이면서 더 나은 나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과거의 자기는 부족하고 과실이 있더라도 현재의 자기는 그때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Ross와 Wilson(2000, 2002)은 부정적인 기억이나 과거의 실패보다 긍정적인 기억이나 과거의 성공을 현재의 자기와 더 가깝게 지각함으로써 호의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하는 현상을 시간적 자기평가 이론(theory of temporal self-appraisal)으로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자전적 기억을 인출하는 동안 본인이 희망하는 현재의 자기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기억을 보는 관점을 변경하는데, 과거 경험과 현재 간 거리가 주관적으로 바뀌어 긍정적 사건을 부정적인 사건보다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여긴다(Demiray & Janssen, 2015). 또한 자기의 좋은 면을 보여주는 긍정적 사건의 기억을 더 상세하게 구성하여 긍정적 정보를 부정적 정보보다 더 많이 회상하고(Rogers, Kuiper, & Kirker, 1977), 긍정 사건보다 부정사건에 대한 기억이 빨리 사라지기도 한다(Walker, Skowronski, & Thompson, 2003).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전적 기억의 자기 향상을 기반의 심리적 기제이다(Leary, 2007; Sedikides & Green, 2000).

Demiray와 Janssen(2015)은 18세부터 80세의 참가자 445명을 대상으로 중요한 사건 일곱 가지를 생각하게 한 후, 회상한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자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기억보다 긍정적 기억과의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자전적 기억이 긍정적 자기개념에 기여한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D'Argembeau와 Van der Linden(2008)도 18~55세의 남녀 112명에게 네 가지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에 관련된 현상학적 특성을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을 부정적인 사건보다 더 상세히 기억하는 긍정편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편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Comblain, D'Argembeau와 Van der Linden의 연구(2005)에서는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긍정적 사건, 부정적 사건, 중립적 사건을 두 가지씩 회상하도록 하여 사건의 세부사항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청년과 노인 모두 중립적 사건보다 정서적 사건의 세부사항을 더 많이 회상하였으나 긍정사건과 부정사건 간에는 회상량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년기 긍정편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사용하여 연구가 수행되어 온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야기나 자전적 기억을 사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노인은 중요한 생활사건이 자기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노인이 부정적 중요생활사건보다 긍정적 중요생활사건의 상세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하는 긍정편향이 나타난다면, 이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연결되어 자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에 따라 어떤 생활사건이 중요한가는 다르겠지만, 전생애 동안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의 전형적인 삶의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사건을 산출할 수 있고, 그 사건들을 순서 짓는 시간표가 있을 수 있다. 즉 사회의 기대를 구조화하고 행동을 조정하는 연령 기준이 있고 이를 문화적 생애각본(cultural life script)이라고 한다. Thomsen과 Berntsen(2008)은 문화적 생애각본이 주요 생활사건을 조정하는 규범적인 시간표이므로 규정적인 사건과 그 타이밍에 대한 지식이 내포되어 있는 인지 구조라고 하였다. Berntsen과 Rubin(2004)이 103명의 대학생에게 자신의 문화권에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삶의 중요한 생활사건을 기록하게 하고 각 사건에 대해 발생율, 중요성, 발생 연령, 정서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생애각본 사건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이 회상한 사건은 36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결혼, 자녀 출생, 취학, 대학, 사랑, 은퇴, 출가, 부모 사망, 첫 직업, 첫 친구, 형제자매, 심각한 질병, 손자손녀, 배우자 사망, 중요한 성취 등이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실제로 매우 중복적으로 회상한 사건들이 나타남으로써 공유하는 인지 구조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회상한 사건의 순서는 시간적 구조가 있는 생애각본과 일치하였다. Thomsen과 Berntsen(2008)이 노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 스토리 중 핵심적인 사건 다섯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였을 때에도 결혼, 직업 결정, 자녀 출생, 배우자 사망, 학교 입학, 부모의 죽음, 은퇴, 이혼, 질병, 연애 등 현저한 생애각본을 중심으로 회상하였다. 생애각

본은 전생애 발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이 주를 이루겠으나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으므로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서구 문화권에서 수행된 Bohn의 연구(2010)에서 자신이 독립하여 집을 떠나거나 자녀가 독립하여 빈 동지가 되는 것, 장기 여행을 많이 회상했으며, Thomsen과 Berntsen의 연구(2008)에서도 생애각본은 아니지만 제2차 세계대전 관련사건, 이사 등이 회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적 문화인 서구와 달리 집단주의적 문화이므로 관계에 관련된 사건이 많을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구 문화와 다르게 우리 문화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유대관계가 더 강하여 자녀에 관련된 사건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떤 내용의 사건을 회상하는가와 함께 언제 발생한 사건을 회상하는가에 관해 자전적 기억 연구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회상 패턴이 있다. 5세 이전의 사건은 좀처럼 회상되지 않는 영아 기억상실이 있고,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까지 일어난 사건을 많이 회상하는 회고 절정이 있다(Alea, Ali, & Marcano, 2014; Janssen, Chessa, & Murre, 2005; Rubin & Schulkind, 1997). 기억상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한데, 먼저 생후 초기에는 기억이 물리적 행위나 감각에 의해 부호화되지만 이후로는 언어로 부호화되므로 정보 저장 방식의 차이로 인출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Simcock & Hayne, 2002). 또 영아는 인지적 자기개념이 없으므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나와 관련된 특정 사건으로 기억하는 기억의 개별화가 어렵고, 사건의 시간 및 인

과적 순서를 기술할 추상적 지식구조나 스크립트 형성이 발달되지 않았으며, 영아기에는 자전적 기억 형성을 지원하는 기억체계가 신경생리학적으로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는 등의 설명이 있다(Nelson & Fivush, 2004). 그리고 회고 절정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은 성인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아를 규정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기 때문이며(Fitzgerald, 1996; Habermas, Hatiboğlu, & Köber, 2015), 청년기에는 생물학적·인지적·환경적으로 부호화, 저장, 인출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Rubin, Rahhal, & Poon, 1998) 설명한다. 이러한 회상 사건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Berntsen과 Rubin(2004)은 어떤 정서의 사건을 어느 시기에 많이 회상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20~99세 성인을 대상으로 “만약 100세인에게 인생에서 극히 행복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때가 몇 세라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으로 가장 행복한/슬픈/중요한/외상적/사랑에 빠지는/두려운 때를 알아보았다. 행복하고 중요하고 사랑에 관한 사건은 긍정사건으로 분류되는데, 행복한 일은 20대에 일어난 경우가 75%였고, 중요 사건은 20-30대에 63% 발생하였으며, 사랑에 관한 사건은 90%가 10-20대에 일어났다. 그 반면, 부정적인 사건으로 슬픈 일이 70대에 37%, 두려운 일이 10대에 33%, 외상사건은 40대에 46%에 해당되면서, 긍정사건이 특정 기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부정사건은 편편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는 자전적 기억의 내용 및 사건 발생 시기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경험한 중요생활사

건의 내용과 그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알아본다면 우리 문화의 생애각본과 자전적 기억의 회고 양상에 관한 긴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내 인생의 중요생활사건’ 중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을 회상하도록 하여 긍정 및 부정적 중요생활사건이 어느 연령대에 발생한 어떤 내용의 사건인지 살펴본 후, 부정적 사건보다 긍정적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회상하는 긍정편향이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년기에 회상하는 긍정적 중요생활사건과 부정적 중요생활사건의 주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노년기에 중요생활사건으로 회상한 긍정적 및 부정적 사건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연구문제 3. 노년기에 회상한 긍정적 중요생활사건에 대한 정보는 부정적 사건의 정보보다 더 많은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을 통해 모집된 노인 60명(64세~91세)으로 여성 35명,

표 1. 참가자 특성 (N = 60)

	M	SD
연령	75.75세	5.74
교육연수	9.88년	4.51
MMSE-KC	27.07	1.94
KGDS	8.00	4.98

주. 인지기능은 MMSE-KC, 우울은 KGDS로 측정하였음.

남성 25명이었다. 과거에 경험한 사건을 회상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므로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기능 및 우울을 측정하는 검사를 실시하여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연령과 성별, 학력에 따른 기준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우울 검사 점수가 22점 이상으로 우울이 심한 상태인 경우에는 참가가 제한되었다. 표 1에 참가자의 특성을 제시하였고, 참가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부록 1에서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중요생활사건의 회상 과제

참가자에게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떠올려 긍정적인 사건 세 가지, 부정적인 사건 세 가지를 구술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자전적 기억 연구 방법에 따라 기억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하루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건은 제외하였다. 회상 절차는 Levine, voboda, Hay, Winocur와 Moscovitch(2002)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김영경, 진영선, 이장호의 연구(2009)에

서 처음 사용한 자전적 인터뷰(Autobiographical Interview; AI)에 따랐다. 참가자가 먼저 자유회상을 한 후, 기억의 특성 평가 항목에 있으나 자발적으로 인출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구술시간을 제시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예”, “아”와 같은 경청 반응만 하였다.

기억의 특성 평가

참가자가 회상한 기억의 세부 정보 회상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억의 특성 평가는 Levine 등(2002)이 제시한 방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인터뷰 녹취록을 사용하여 회상량을 측정하는 구술 내용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지각, 세부사항, 사고 및 정서 등의 일화적 범주 및 의미기억, 반복, 기타 등 비일화 범주 두 가지로 대별된다. 여기에 D'Argembeau, Van der Linden, d'Acremont와 Mayers(2006)가 개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자기 참조 정보 및 기타 참조 정보 범주를 추가하여 구술 내용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평가 일치도는 두 평가자가 일부 녹취록을 평가한 후, 총 분류항목 중 일치하는 항목으로 측정할 때 90% 이상이었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기억 특성 평가 내용은 표 2와 같고 평가 예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in Korean version of CERAD; MMSE-KC)

Morris 등(1989)이 치매 진단평가를 위해 개발한 신경심리 평가도구를 김기웅 등(2003)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CERAD-K의 하위검사이다.

표 2. 기억 특성 평가 척도

세부 범주		평가 내용
세부정보	세부사항	해프닝, 개인의 존재, 날씨
	지각	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 촉감적 세부사항, 신체자세, 지속시간
	장소	도시, 거리, 건물, 방 등
	시간	연도, 월, 일, 계절, 요일, 시각
일화정보	언어	이 사건에 관련하여 내가 했던 말
	행동	이 사건에 관련하여 내가 했던 행동
	정서	이 사건에 관련된 정서 상태
	사고	이 사건에 관련된 나의 생각
타인정보	언어	이 사건에 관련하여 타인이 했던 말
	행동	이 사건에 관련하여 타인이 했던 행동
	정서	이 사건에 관련된 타인의 정서 상태
비일화 정보	의미	상식, 역사적 사실,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
	반복	이미 언급한 내용의 재언급
	기타	메타기억, 무관련 내용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 주의 집중력, 시공간 구성능력, 언어능력, 이해 및 판단 능력 등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간략하게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노인우울검사(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척도를 정인파, 광동일, 조숙행과 이현수(1998)가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신체적 증상과 관련된 문항은 배제하고 우울의 인지 및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인의 우울 측정에 적합하다. 개발 당시 내적 일치도(Chronbach's

α)는 .88이었다.

3. 연구절차

참가자에게 연구 및 연구 참여 방법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참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먼저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한 다음, 정신상태 검사와 우울검사를 실시하고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긍정적인 사건 세 가지, 부정적인 사건 세 가지를 구술하였다. 사건의 정서가가 회상 내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절반은 긍정적 사건부터,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사건부터 회상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각 사건에 대해 참가자가 먼저 자유롭게 회상하고, 기억 특성

평가 범주에 있으나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연구자가 질문하여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 발생 시 참가자의 연령을 확인하였다. 모든 수행에 소요된 시간은 개인차가 있었으나 대체로 1시간 정도였고, 사건의 회상 기술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4. 자료분석

참가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참가자들이 구술한 사건의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주제별로 빈도 및 비율을 산정하였다. 또 회상한 사건 발생 시 연령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자전적 기억의 회고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5년 간격으로 빈도 및 비율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긍정사건과 부정사건의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1을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중요생활사건의 주제

참가자들이 구술한 긍정 및 부정적 중요생활사건의 주제를 생애 각본 사건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참가자들은 긍정적 사건으로 자녀 출생을 14.44%로 가장 많이 회상하였으며 사회관계에 관련된 사건이 12.22%, 일 11.11%, 자녀 결혼이 10.56%로 많았다. 그다음에 본인의 결혼이 9%, 자녀 교육이 8%, 본인의 학업, 집

장만, 자녀 일에 관한 사건이 6%로 나타났다. 그 반면, 부정적 사건의 주제로는 사별이 2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사회관계가 19.44%, 일 12.78%, 건강 10.56%, 금전 관련 사건이 9.44%, 사고 5.56%로 나타났다. 사건 정서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관계에 관한 사건이 15.8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일 11.94%, 사별이 11.39%로 많았으며 자녀 출생 7.78%, 사랑과 결혼 6.67%, 자녀 결혼 6.11%, 건강 5.83%가 그 뒤를 이었다.

2. 중요생활사건 발생 시 연령

참가자들이 구술한 사건의 발생 시기를 5년 단위로 세분하면 그림 1과 같다. 전체적으로 26-30세에 발생한 사건이 52회(14.44%)로 가장 많았고 61-65세가 34회, 56-60세 32회, 46-50세 30회 순이었다. 사건 정서별로 회상한 사건의 발생 연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3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사건의 경우, 0-10세가 3회, 11-20세 14회, 21-30세 47회, 31-40세 25회, 41-50세 29회, 51-60세 26회, 61-70세 23회, 70세 이상은 13회였다. 부정적 사건은 0-10세가 2회, 11-20세 13회, 21-30세 28회, 31-40세 24회, 41-50세 26회, 51-60세 30회, 61-70세 31회, 70세 이상이 26회였다.

3. 중요생활사건의 정서가에 따른 정보 회상량의 차이

본 연구 문제에 관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참가자의 성비가 동일하지 않아 구술 시간과 단어 수, 기억 특성에서의 성차를 사전 분석

표 3. 사건 주제

주제	긍정		부정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업(합격, 입학, 진학, 졸업 등)	12	6.67	4	2.22	16	4.44
일(취업, 승진, 개업, 은퇴, 업무능력 등)	20	11.11	23	12.78	43	11.94
결혼	17	9.44	7	3.89	24	6.67
집 장만	11	6.11	0	0	11	3.06
건강	2	1.11	19	10.56	21	5.83
사고(교통사고, 작업장 사고 등)	0	0	10	5.56	10	2.78
사별(배우자, 부모, 조부모, 동기, 자녀 등)	0	0	41	22.78	41	11.39
금전적 곤란(사기, 보증, 저당, 대여, 빚 등)	0	0	17	9.44	17	4.72
관계(배려, 선물, 돌봄 / 언쟁, 불화, 다툼 등)	22	12.22	35	19.44	57	15.83
여가생활(여행, 수강, 봉사활동 등)	14	7.78	2	1.11	16	4.44
품행(도박, 자금오용)	0	0	3	1.67	3	.83
자녀 출생	26	14.44	2	1.11	28	7.78
자녀 교육	15	8.33	2	1.11	17	4.72
자녀 일(취업, 사업, 전업 등)	11	6.11	3	1.67	14	3.89
자녀 결혼	19	10.56	3	1.67	22	6.11
자녀 건강	1	.56	4	2.22	5	1.39
자녀 문제(과소비, 폭행)	0	0	4	2.22	4	1.11
손자녀 출생	5	2.78	0	0	5	1.39
손자녀 건강	1	.56	1	.56	2	.56
손자녀 교육	2	1.11	0	0	2	.56
기타(자기주장, 귀국)	2	1.11	0	0	2	.56
계	180	100	180	100	360	100

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술 단어 수($F = .06, p = .81$), 구술 시간($F = 2.71, p = .11$), 일화정보 회상량($F = 1.19, p = .28$), 비일화정보 회상량($F = 1.50, p = .23$)에서 모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의 정서에 따른 기억 특성의 차이를 알

아보기 전에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단어 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사건 정서가를 독립변수로, 이야기의 단어와 시간을 종속변수로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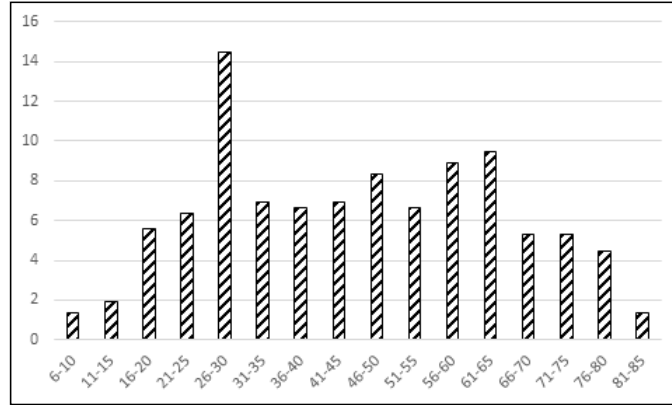


그림 1. 연령 범위별 전체사건 회상 빈도(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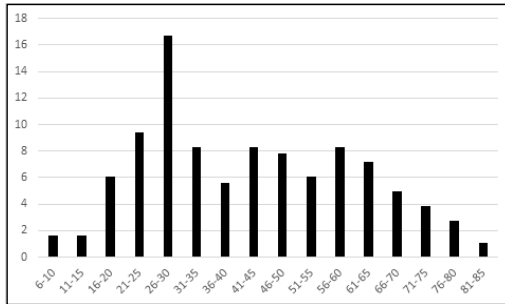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긍정사건 회상빈도(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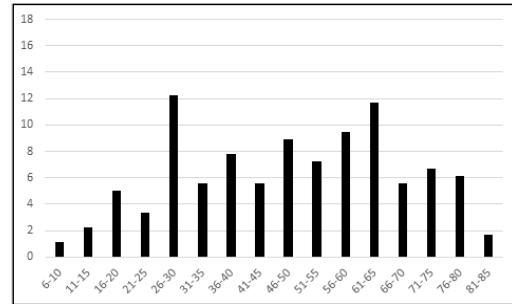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부정사건 회상빈도(백분율)

표 4. 사건 정서가에 따른 담화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긍정		부정		<i>F</i>
	<i>M</i>	<i>SD</i>	<i>M</i>	<i>SD</i>	
단어	765.30	270.77	936.45	378.36	8.12**
시간	625.35	183.27	721.48	232.21	6.34*

* $p < .05$. ** $p < .01$.

더 길었으며($F = 6.34, p < .05$) 부정사건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 = 8.12, p < .01$). 따라서 노인은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더 많은 단어로 더 오래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기억 특성에서 사건 정서별 정보 회상량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일화정보와 비일화정보로 대별했을 때 일화정보에서는 차

표 5. 사건 정서가에 따른 기억 회상량의 평균과 표준편차

			긍정		부정		<i>F</i>	
			<i>M</i>	<i>SD</i>	<i>M</i>	<i>SD</i>		
일화 정보	세부	세부사항	21.73	9.11	28.55	13.41	6.18*	10.61***
		시간	7.65	3.11	7.65	3.12		0.00
		장소	3.83	2.68	3.27	2.36		1.51
		지각	4.45	3.02	5.75	4.61		3.34
	자기	언어	2.73	2.53	3.90	4.06	11.54***	3.57
		행동	1.40	2.09	2.82	2.27		12.66***
		정서	4.90	2.12	5.00	2.54		.06
		사고	2.87	2.65	5.03	3.33		15.55***
	타인	언어	5.08	3.78	7.47	5.96	6.32*	6.84**
		행동	1.03	1.28	1.93	2.69		5.50*
		정서	.88	.92	.62	.96		2.41
		의미	4.87	3.29	7.73	5.50		.00
비일화 정보		반복	2.58	2.12	1.68	1.75	3.05	12.01***
		기타	37.67	13.31	45.22	19.40		6.46*

* $p < .05$. ** $p < .01$. *** $p < .001$.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F = 11.54, p < .01$), 비일화정보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 = 3.05, p = .08$). 세부 범주를 살펴보면 일화정보 중 사건의 세부사항($F = 10.61, p < .01$), 자기 행동($F = 12.66, p < .01$)과 사고($F = 15.55, p < .01$), 타인의 언어($F = 6.84, p < .05$)와 행동($F = 5.50, p < .05$)에서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비일화정보에서는 반복($F = 12.01, p < .01$) 및 기타($F = 6.47, p < .05$)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에서 사건의 세부사항, 나의 행동과 사고, 타인의 언어와 행동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하였고 기타 언급도

더 많았으며, 긍정사건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 언급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중요한 생활사건으로 회상하는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의 주제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사건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지를 살펴보고, 부정적 사건보다 긍정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더 많이 회상하는지, 즉 자전적 기억 회상에서 긍정편향이 일어나는지 알아보

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내 인생의 중요한 긍정적 사건으로 가장 많이 회상한 것은 자녀 출생이었고, 그다음으로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정적인 정서를 느꼈던 사건이 많았으며, 일, 자녀 결혼, 본인 결혼, 여가생활, 학업, 집 장만에 관한 사건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 사건으로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과 사별한 사건을 가장 많이 회상하였고, 두 번째로 부정적인 사회관계에 관한 사건이 많았으며 그다음이 건강, 금전적 곤란, 사고에 관한 사건 순이었다.

둘째, 노인이 언제 발생한 사건을 회상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긍정사건과 부정사건 모두 아동기에 발생한 사건은 드물었고, 긍정적 사건의 경우에는 26-30세가 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면서 21-30세, 즉 젊은 성인기의 사건이 26.11%로 현저히 많은 반면, 부정적 사건은 26-30세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61-65세의 빈도와 유사하였고 젊은 성인기 빈도는 15.56%로 긍정사건에서와 같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노인은 자신이 경험한 중요한 생활사건을 회상할 때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더 많은 단어로 더 오래 구술하였다. 또한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일 경우, 사건에 관련된 세부사항, 나의 행동과 사고, 타인의 언어와 행동을 더 많이 기억하였고, 부정사건보다 긍정사건일 때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반복 언급하는 일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먼저, 참가자들이 회상한 전체적인 생애 중요사건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5세 이하에

발생한 사건은 없었고 21-30세에 발생한 사건이 다른 연령 기간보다 현저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전적 기억의 분포에 관한 연구에서 주제를 제한하여 중요사건 한두가지를 회상하도록 하거나(Schuman & Scott, 1989)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Rubin, Wetzler, & Nebes, 1986)가 있으나, 참가자의 연령층이 넓고 인원이 많거나 회상 사건의 수를 제한하지 않은 연구(Conway, Wang, Hanyu, & Haque, 2005; Rubin & Schulkind, 1997)에 비해 본 연구의 표본이나 회상 사건의 수가 작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자전적 기억 분포를 기술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하겠으나 자전적 기억 연구에서 보이는 영아 기억상실이 보인다고 할 수 있고, 21-30세에 발생한 사건이 다른 연령 기간보다 현저하게 많음으로써 회고 절정 현상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사건의 정서가별로 회고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긍정사건에서 회고 절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사건에서는 아동기를 제외하고 21-30세의 발생 사건 비율이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의 연령대 발생 비율과 유사하였다. Berntsen과 Rubin(2002, 2004)이 자전적 기억의 견고한 결과인 회고 절정 현상이 부정적 기억이 아닌 긍정적 기억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후에 Gluck과 Bluck(2007)에 의해서도 이러한 결과가 반복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긍정사건에서만 회고절정이 나타나 이들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부정사건으로는 긍정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와 함께 중년 후기에 일어난 사건을 많이 회상하였다. Fitzgerald(1996)는 회고절정이 자아 정체성에 관련되는 사건이 많

은 청소년 및 성인 초기에 나타나지만 중년기나 노년기에서도 자기 삶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회고절정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중년기는 사회적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면서 자녀의 독립, 결혼, 출산이라는 큰일을 경험하는 한편, 고령의 부모를 돌보거나 사별을 경험하고 자신의 건강에도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는 등 부정적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주제 면에서는 사건의 정서가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관계에 관한 사건이 가장 많았는데, Sheldon과 Kasser(2001)는 성격 발달 연구에서 타인과의 친밀한 연결은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만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발달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관계 관련 사건 중, 특히 부정적 관계에 관한 사건이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주제인 일에 관한 사건은 20대에 취업으로 시작하여 승진, 직무능력, 사업, 사퇴, 실직, 은퇴 등을 경험하면서 중년기, 노년기까지 계속 등장하였고 긍정 대 부정사건 비율이 유사하였다. 사별 또한 일과 유사하게 자주 회상한 주제로서, 사별 대상이 자녀, 부모, 형제, 배우자 등으로 성인기 초기부터 중기를 거쳐 후기까지 계속 등장하였다. 그다음이 자녀 출생이었으며, 본인의 결혼과 자녀의 결혼이 그 뒤를 이어 유사한 빈도로 인출되었다. 정서가별로 보면 긍정사건으로 자녀의 출생·교육·결혼 등 자녀 관련 사건이 많았고 집 장만에 대한 이야기를 적지 않게 회상하였으며, 부정사건으로 보증, 저당 등에 의한 금전적 손실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우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덴마크 노인 대상의 연구(Bohn, 2010; Thomsen & Berntsen, 2008)에서 독립, 빈둥지, 장기여행, 이사 등이 나타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생활사건이 문화적 생애각본에 일치하여 산출된다는 면에서 개인이 속한 문화를 반영하여 중요생활사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능력과 자유가 중시되는 반면, 집단문화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관계 속 조화를 중시하므로 관계가 긍정 및 부정사건 모두에서 비중 있게 인출되었고 가장 밀접한 관계인 자녀에 관한 사건이 자기 삶의 의미와 연결되었다고 생각된다. 정리하면, 긍정적 사건에서 회고절정이 나타난 데에는 결혼과 자녀 출생, 일에 관한 경험이 기여한 바가 크고, 부정 사건에서는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 문제 및 사별이 특정 연령시기가 아닌 여러 시기에 나타났고 중년기부터는 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긍정사건과는 달리 특정 시기에 유난히 높은 회상 빈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 정서가별로 인출한 정보량을 살펴보면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나 그 사건에 관련된 나의 행동과 사고, 타인의 언어와 행동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이 회상됨으로써 긍정편향을 보이지 않았다. Lawton, Kleban, Rajagopal과 Dean(1992)은 우리가 노년기에 이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의 유지를 위해 정서조절을 시도하면서 정서적 만족을 얻고자 한다고 주장하였고, Carstensen(1992)도 노년기에는 지식과 관계 확대를 추구하는 목표의 중요성은 줄어드는 반면, 정서적으로 의미 있거나 안녕감과 관련된 목표가 더 중요

해진다고 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인이 주의 및 기억의 정보처리과정에서 부정적인 정보보다도 긍정적인 정보를 더 선호하고 더 잘 기억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긍정편향을 지지하는 연구가 많지만(김유진, 강연옥, 2016; Di Domenico, Palumbo, Mammarella, & Fairfield, 2015; Ebner & Johnson, 2010),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선규, 강효신, 이태호, 2009; Fung et al., 2008). 그림, 단어, 탐침, 얼굴, 영상 등 다양한 실험 자극과 조건으로 긍정편향에 대해 보다 세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자전적 기억을 사용한 경우에는 Demiray와 Janssen(2015)이 10대부터 노인까지, D'Argembeau와 Van der Linden(2008)은 10대부터 중년까지 그리고 Schaefer와 Philippot(200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편향이 나타나 긍정적 자기개념에 기여하며 자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다. 반면,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척도를 사용한 Comblain과 동료들의 연구(2005)와 청년을 대상으로 척도 및 구술 프로토콜을 이용한 김영경의 연구(2021)에서는 긍정편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년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긍정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자전적 기억의 이야기를 분석한 Alea와 Bluck, Semegon의 연구(2004)를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이론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정서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가운데, 긍정적 정서에서는 정서 빈도의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정 정서는 노인이

청년보다 더 많이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정서를 긍/부정, 두 가지로 대별하지 않고 구체적인 하위 범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을 때 '행복', '분노', '놀람'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슬픔'에서는 노인이 청년보다 더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청년과 비교하지 않았지만, 노인이 긍정적인 생활사건보다 부정사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였고 부정사건의 주제가 사별, 은퇴, 사퇴, 사업 실패, 이혼, 건강문제 등으로, 슬픔이 주 정서라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Alea 등(2004)의 결과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Rozin과 Royzman(2001)의 부정성에 관한 고찰에 의하면 긍정정서에 비해 부정정서는 더 정교하고 세분화되어 다양하며, 이는 즐거움보다 고통을 묘사하는 형용사가 더 많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긍정사건이 주는 이득보다 부정사건은 더 위협적이며,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은 사건에 대한 평가가 복잡하고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안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사건이 긍정사건보다 전염성이 더 크므로 부정적인 잠재력이 더 크다고 했으며 Pillemer, Ivcevic, Gooze와 Collins(2007)도 긍정적인 사회관계에서 받는 영향보다 사회관계에서의 문제가 생활 만족도와 자기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이 구술한 부정사건인 사별, 사직 또는 은퇴, 건강, 관계문제 등의 불가역적 사건이 강한 부정 정서를 유발하면서 다양한 반응과 대처 행위를 낳고 그 부정적 영향은 다른 사건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부정성의 위력을 생각하면,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을 더 상세하게 구

술한 결과가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년과 노인 모두 부정적 사건보다 긍정적 사건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더 가깝게 느껴 자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이 나타났으나(김영경, 김혜리, 2019), 청년이 긍정사건보다 부정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회상한 것에 이어(김영경, 2021) 본 연구에서 노인도 부정사건의 세부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적 기억을 사용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에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긍정편향이 연령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지, 또한 긍정편향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서구에 비해 국내 연구에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자기개념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중요생활사건을 회상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긍정 및 부정 생활사건의 주제는 무엇이고 언제 발생한 사건을 많이 회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긍정편향을 실험실 과제나 설문이 아니라 실생활을 반영한 자전적 기억으로 알아봄으로써 연구의 실증력을 높였고, 단순히 척도로 수적 분석을 통해 긍정정보와 부정정보량의 차이를 보는 것을 넘어서 긍정사건과 부정사건의 어떤 범주에서 정보량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녹취록 분석으로 면밀히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노인의 긍정편향을 자전적 기억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와 함께 본 연구에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자전적 인터뷰를 사용하였는데, 인터뷰어의 연령, 성별, 외모, 목소리, 말투 등이 구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참가자에 대한 인터뷰는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므로 인터뷰어에 의한 차이를 최소화하려 하였으나 모든 영향요인을 통제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전생애 생활사건의 발생 연령과 주제 뿐만 아니라 자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긍정 및 부정사건을 회상하도록 하였으나, 연구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떠오르는 대로 사건을 회상하게 하였다면 더 풍부한 기억 자료로 노화 특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긍정 및 부정 사건을 회상하고 구체적 범주의 회상량을 비교하였는데, 추후에 긍/부정으로 대별하기보다 세부 정서별로 면밀히 살펴본다면 노인의 정서 관련 구술 내용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을 자아통합감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으로 분류하여 자전적 기억의 주제 및 기억 특성을 살펴본다면 노년기 발달과제 완수 정도에 따른 자기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큰 표본으로 발달단계별 중요생활사건을 도출한다면 우리 문화에서 각 단계의 발달과제 및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해하고 성공적 노화의 관련 요인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선규, 강효신, 이태호 (2009). 정서 얼굴에 대한 노인의 선택적 주의 과정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81-96.
- 김기웅, 김성윤, 김주한, 우성일, 우종인, 윤종철, ...한설희 (2003). CERAD-K.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영경 (2021). 청년의 자아존중감과 사건 정서에 따른 자기존중기억의 인출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2), 1-21.
<https://doi.org/10.35574/KJDP.2021.6.34.2.1>
- 김영경, 김혜리 (2019). 청년과 노인의 자기존중기억의 심리적 거리로 살펴본 자전적 기억이 자기 개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6(1), 27-47.
<https://doi.org/10.15284/kjhd.2019.26.1.27>
- 김영경, 진영선, 이장호 (2009). 노화와 자전적 기억: 회상유형과 사상유형에 따른 일화 및 비일화 기억 양상 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9-32.
- 김유진, 강연욱 (2016). 우울한 노인의 대학생의 정서적 정보처리과정: 주의편향과 기억편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4), 101-121.
- 정인과, 곽동일, 조숙행, 이현수 (1998). 한국형 노인우울검사 표준화에 대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7(2), 340-351.
- Alea, N., Ali, S., & Marcano, B. (2014). The bumps in Trinidadian life: Reminiscence bumps for positive and negative life even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8(2), 174-184.
<https://doi.org/10.1002/acp.2975>
- Alea, N., Bluck, S., & Semegon, A. B. (2004). Young and older adults' expression of emotional experience: Do autobiographical narratives tell a different stor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4), 235-250.
<https://doi.org/10.1023/B:JADE.0000044527.52470.5d>
- Berntsen, D., & Rubin, D. (2002). Emotionally charged autobiographical memories across the life span: The recall of happy, sad, traumatic, and involuntary memories. *Psychology and Aging*, 17(4), 636-652.
<https://doi.org/10.1037//0882-7974.17.4.636>
- Berntsen, D., & Rubin, D. (2004). Cultural life scripts structure recall from autobiographical memory. *Memory and Cognition*, 32(3), 427-442.
- Bluck, S. (2003). Autobiographical memory: Exploring its functions in everyday life. *Memory*, 11(2), 113-123.
<https://doi.org/10.1080/741938206>
- Bohn, A. (2010). Generational differences in cultural life scripts and life story memories of younger and older adul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4(9), 1324-1345.
<https://doi.org/10.1002/acp.1641>
- Carstensen,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3), 331-338.
- Comblain, C., D'Argembeau, A., & Van der Linden, M. (2005). Phenomenal characteristics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for emotional

- p>and neutral events in older and younger adults.
- Experimental Aging Research*
- , 31(2), 173-189.
-
- <https://doi.org/10.1080/03610730590915010>
- Conway, M. A., Singer, J. A., & Tagini, A. (2004). The self and autobiographical memory: Correspondence and coherence. *Social Cognition*, 22(5), 491-529.
<https://doi.org/10.1521/soco.22.5.491.50768>
- Conway, M. A., Wang, Q., Hanyu, K., & Haque, S. (2005).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On the universality and cultural variation of the reminiscence bump.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6), 739-749.
<https://doi.org/10.1177/0022022105280512>
- D'Argembeau, A., & Van der Linden, M. (2008). Remembering pride and shame: Self-enhancement and the phenomenology of autobiographical memory. *Memory*, 16(5), 538-547.
<https://doi.org/10.1080/09658210802010463>
- D'Argembeau, A., Van der Linden, M., d'Acremont, M., & Mayers, I. (2006). Phenomenal characteristics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for social and non-social events in social phobia. *Memory*, 14(5), 637-647.
<https://doi.org/10.1080/09658210600747183>
- Demiray, B., & Janssen, S. M. J. (2015). The self-enhancement fun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9(1), 49-60. <https://doi.org/10.1002/acp.3074>
- Di Domenico, A., Palumbo, R., Mammarella, N., & Fairfield, B. (2015). Aging and emotional expressions: Is there a positivity bias during dynamic emotion recognition? *Frontiers in Psychology*, 6, 1130-1134.
<https://doi.org/10.3389/fpsyg.2015.01130>
- Ebner, N. C., & Johnson, M. K. (2010). Age-group differences in interference from young and older emotional faces. *Cognition and Emotion*, 24(7), 1095-1116.
<https://doi.org/10.1080/02699930903128395>
- Fitzgerald, J. M. (1996). The distribution of self-narrative memories in younger and older adults: Elaborating the self-narrative hypothesis. *Aging, Neuropsychology, and Cognition*, 3(3), 229-236.
<https://doi.org/10.1080/13825589608256626>
- Fung, H. H., Isaacowitz, D. M., Lu, A. Y., Wadlinger, H. A., Goren, D., & Wilson, H. R. (2008). Age-related positivity enhancement is not universal: Older Chinese look away from positive stimuli. *Psychology and Aging*, 23(2), 440-446.
<https://doi.org/10.1037/0882-7974.23.2.440>
- Gluck, J., & Bluck, S. (2007). Looking back across the life span: A life story account of the reminiscence bump. *Memory & Cognition*, 35(8), 1928-1939.
<https://doi.org/10.3758/BF03192926>
- Habermas, T., Hatiboğlu, N., & Köber, C. (2015). Why does the adolescence bump differ from the emergent adulthood bump in autobiographical memori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4(1), 84-86.
- Janssen, S. M. J., Chessa, A., G., & Murre, J. M.

- J. (2005). The reminiscence bump in autobiographical memory: Effects of age, gender, education, and culture. *Memory*, 13(6), 658-668.
<https://doi.org/10.1080/09658210444000322>
- Lawton, M., Kleban, M., Rajagopal, D., & Dean, J. (1992). The dimensions of affective experience in three age groups. *Psychology and Aging*, 7(2), 171-184.
- Leary, M. R. (2007). Motivational and emotional aspects of the self.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1), 317-344.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8.110405.085658>
- Levine, B., Svoboda, E., Hay, J. F., Winocur, G., & Moscovitch, M. (2002). Aging and autobiographical memory: Dissociating episodic from semantic retrieval. *Psychology and Aging*, 17(4), 677-689.
<https://doi.org/10.1037/0882-7974.17.4.677>
- Lo Gerfo, M. (1980). Three ways of reminiscence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1), 39-46.
<https://doi.org/10.2190/cbkg-xu3m-v3jj-la0y>
- Morris, J. C., Heyman, A., Mohs, R. C., Hughes, J. P., van Belle, G., Fillenbaum, G., ...Clark, C. (1989).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CERAD). Part I: Clinical and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of Alzheimer's Disease. *Neurology*, 39(9), 1159-1165.
<https://doi.org/10.1212/wnl.39.9.1159>
- Nelson, K., & Fivush, R. (2004). The emergence of autobiographical memory: A social cultural developmental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11(2), 486-511.
<https://doi.org/10.1037/0033-295X.111.2.486>
- Pillemer, D. B. (1992). Remembering personal circumstances: A functional analysis. In E. Winograd & U. Neisser (Eds.), *Affect and accuracy in recall: Studies of "flashbulb" memories* (Emory symposia in cognition 4th ed., pp. 236-26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llemer, D. B., Ivcevic, Z., Gooze, R. A., & Collins, K. A. (2007). Self-esteem memories: Feeling good about achievement success, feeling bad about relationship distr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9), 1292-1305.
<https://doi.org/10.1177/0146167207303952>
- Pinquart, M., & Forstmeier, S. (2012). Effects of reminiscence interventions on psychosocial outcomes: A meta-analysis. *Aging and Mental Health*, 116(5), 541-558.
- Rogers, T. B., Kuiper, N. A., & Kirker, W. S. (1977). Self-references and the coding of person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9), 677-688.
<https://doi.org/10.1037/0022-3514.35.9.677>
- Ross, M., & Wilson, A. E. (2000). Constructing and appraising past selves. In D. L. Schacter & E. Scarry (Eds.), *Memory, brain, and belief* (pp. 231-25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oss, M., & Wilson, A. E. (2002). It feels like

- p>
yesterday: Self-esteem, valence of personal past experiences, and judgements of subjective distance.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 82(5), 792-803.
- Rozin, P., & Royzman, E. B. (2001). Negativity bias, negativity dominance, and contag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4), 296-321.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504_2
- Rubin, D. C., Rahhal, Y. A., & Poon, L. W. (1998). Things learned in early adulthood are remembered best. *Memory & Cognition*, 26(1), 3-19. <https://doi.org/10.3758/bf03211366>
- Rubin, D. C., & Schulkind, M. D. (1997). The distribu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across the lifespan. *Memory & Cognition*, 25(6), 859-866.
<https://doi.org/10.3758/bf03211330>
- Rubin, D. C., Wetzler, S. E., & Nebes, R. D. (1986). *Autobiographical mem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efer, A., & Philippot, P. (2005). Selective effects of emotion on the phenomenal characteristics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Memory*, 13(2), 148-160.
<https://doi.org/10.1080/09658210344000648>
- Schuman, H., & Scott, J. (1989).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359-381.
<https://doi.org/10.2307/2095611>
- Sedikides, C., & Green, J. D. (2000). On the self-protective nature of inconsistency-negativity management: Using the person memory paradigm to examine self-referent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906-922.
<https://doi.org/10.1037//0022-3514.79.6.906>
- Sheldon, K. M., & Kasser, T. (2001). Getting older, getting better? Personal strivings and psychological maturity across the life 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491-501.
<https://doi.org/10.1037//0012-1649.37.4.491>
- Simcock, G., & Hayne, H. (2002). Breaking the barrier: Children do not translate their preverbal memories into language. *Psychological Science*, 13(3), 225-231.
<https://doi.org/10.1111/1467-9280.00442>
- Subramaniam, P., & Woods, B. (2012). The impact of individual reminiscence therapy for people with dementia: Systematic review. *Expert Review of Neurotherapeutics*, 12(5), 545-555. <https://doi.org/10.1586/ern.12.35>
- Thomsen, D. K., & Berntsen, D. (2008). The cultural script and life story chapters contribute to the reminiscence bump. *Memory*, 16(4), 420-435.
<https://doi.org/10.1080/09658210802010497>
- Walker, R. W., Skowronski, J. J., & Thompson, C. P. (2003). Life is pleasant-and memory helps keep it that wa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7(2), 203-210.
<https://doi.org/10.1037/1089-2680.7.2.203>
- Warr, L. M., & Cappeliez, P. (2000). Integrative and instrumental reminiscence therapies for depression in older adults: Interventions strategies and treatment effectiveness. *Aging*

- and Mental Health*, 4(2), 166-177.
<https://doi.org/10.1080/13607860050008691>
- Wilson, A. E., & Ross, M. (2003). The identity fun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Time is on your side. *Memory*, 11(2), 137-149.
<https://doi.org/10.1080/741938210>
-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ey, M. B., & Leirer, V. O.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7(1), 37-49.
[https://doi.org/10.1016/0022-3956\(82\)90033-4](https://doi.org/10.1016/0022-3956(82)90033-4)
- 1 차원고접수 : 2022. 01. 05.
수정원고접수 : 2022. 05. 23.
최종게재결정 : 2022. 06. 27.

Recall Pattern, Theme, and Occurrence Time of Events Based on Emotional Valence of Important Life Events in Older Adults

Kim, Young-Kyoung

Research Institute for the Human Mi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hemes of positive/negative life events, occurrence time of those life events, and the self-enhancement fun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in older adults. Participants were 60 older adults ($M = 75.75$, 25 males, 35 females) and recalled the three positive/negative important life events. If persons were not at the level of normal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they could not participate. The percentage of event themes and occurrence time of events were produced and ANOVA was performed for self-enhancement fun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birth of children was the most recalled theme and social relationship, career, marriage of children, and marriage were produced in positive events. In negative events separation by death, social relationship, health, and financial trouble were recalled. The occurrence time of events showed a bump between 21 and 30 only in positive events. ANOVA showed that older adults recalled more informations about event details, actions and thoughts of themselves, and talk and actions of others in negative events than positive ev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e differences by cultures in themes of important life events, a bump during young adulthood only in positive events and did not support the self-enhancement fun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Keywords: autobiographical memory, life events, reminiscence bump, self-enhancement function, positivity bias

부 록 1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변수	빈도(명)	백분율(%)
연령	61-65세	1.67
	66-70세	12
	71-75세	20
	76-80세	14
	81-85세	10
	86-91세 (91세 1명 포함)	3
학력	초졸 미만	4
	초졸	17
	중졸	11
	고졸	14
	대졸 이상	14
		23.33
주거상태	부부	24
	독거	33
	부부+자녀	2
	독거+자녀	1
		1.67
건강상태	아주 나쁨	1
	조금 나쁨	6
	보통	19
	좋음	30
	아주 좋음	4
		6.67
경제상태	아주 나쁨	3
	조금 나쁨	15
	보통	28
	좋음	14
	아주 좋음	0
		0
종 교	기독교	14
	불교	13
	천주교	7
	없음	26
관계망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	0	9
	1	7
	2	12
	3	15
	4	6
	5	6
	7	1
	10	4
		6.67

부 록 2

부정사건 평가 예

시간-일화 자기 정서-일화 자기 사고-일화
2015년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진짜 슬프더라고요. 생전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 근데 조카한
타인 언어-일화 자기 언어-일화
테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가 돌아가셨대. 엇그저께 통화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올케가 전
타인 언어-일화 장소-일화 자기 행동-일화
화를 바꿔서 엄마 돌아가셨다고 빨리 오시라고. 집에 있다가 전화 받고 허둥지둥하고 아들 데리
자기 정서-일화 반복-비일화
고 갔지. 그 뭐가 쿵 내려앉더라고. 평생 사실 줄 알았지.

긍정사건 평가 예

시간-일화 시간-일화 시간-일화 장소-일화 의미-비일화
첫째 아이를 76년 8월 27일에 서울 00병원에서 낳았어요. 그 당시에는 분만실에 못 들어오게 해
세부-일화 의미-비일화
서 할머니가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큰 손녀거든요. 아이 낳고 분만실에서 나오니까 내
타인 언어-일화 타인 행동-일화
가 하도 소리를 질러서 쌍둥이 낳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름인데 할머니가 자꾸 이불 같은
타인 언어-일화 기타-비일화
거를 어깨에다 덮어 주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몸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잊혀지지가
자기 언어-일화 자기 정서-일화 지각-일화
않아요. 할머니, 아기 손, 발 있나 보라고 하고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예뻐.